

-는 게 좋겠다

조언, 권유

어떤 행동을 권합니다. -는 것에 좋겠다가 결합한 형태로, 직역하면 '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'는 뜻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	-는 게 좋겠다	가다 → 가는 게 좋겠어요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게 좋겠어요
하지 말라는 조언	안 + 동사	안 가는 게 좋겠어요
완전한 형태	-는 것이 좋겠다	가는 것이 좋겠습니다
윗사람에게	-(으)시는 게	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
시제를 붙이지 않음	기본 어간 + 는	갔는 게 좋겠어요는 틀림

■ 언제 쓰나요

동사 어간에 -는을 붙이고 이어서 게 좋겠다를 씁니다. 게는 것이의 준말입니다. ㄹ로 끝나는 어간은 ㄹ이 탈락합니다: 만드는 게 좋겠어요.

안에 들어 있는 -겠-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좋아요라고 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, 좋겠어요는 그것을 자신의 판단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단정이 아니라 제안이 됩니다.

무엇이 필수라는 뜻의 -아/어야 되다보다 부드럽습니다. 친구에게 병원에 가 보라고 할 때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요는 권하는 것이고, 병원에 가야 돼요는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.

하지 말라고 조언할 때는 앞의 동사를 부정합니다: 안 가는 게 좋겠어요.

■ 예문

- 1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요.
- 2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.
- 3 오늘은 일찍 자는 게 좋겠어요.
- 4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.
- 5 저녁은 집에서 만드는 게 좋겠어요.
- 6 지금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

■ 비교

-아/어야 되다
-아/어야 되다는 의무를 말하고, -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합니다. 앞의 것은 거절할 여지가 없습니다.

병원에 가야 돼요. (가야 한다) /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요. (가는 편이 좋다)

-(으)세요
명령형은 지시하는 것이고, 이 표현은 권하는 것입니다. 지시할 입장이 아닐 때는 부드러운 형태가 안전합니다.

일찍 주무세요. (일찍 자라는 지시) / 일찍 자는 게 좋겠어요. (일찍 자는 편이 좋다)

-(으)ㄹ 것 같다
윗사람에게 조언할 때는 것 같다고 감싸면 더 부드러워집니다. 한국어에서 윗사람에게 직접 조언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.

가는 게 좋겠어요. (동료에게) /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(윗사람에게)

■ 주의

✗ 저녁을 만들는 게 좋겠어요.
○ 저녁을 만드는 게 좋겠어요.
관형형 전체에서 그렇듯 ㄹ로 끝나는 어간은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
✗ 어제 병원에 갔는 게 좋겠어요.
○ 어제 병원에 갔어야 했어요.
이 표현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만 조언하므로 과거형을 쓰지 않습니다. 하지 못한 의무에는 -았/었어야 하다는 씁니다.

✗ 사장님, 지금 가는 게 좋겠어요.
○ 사장님, 지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윗사람에게 조언할 때는 높임의 -(으)시-와 완곡한 표현을 더해야 합니다. 직접적인 조언은 주제님께 들릴 수 있습니다.